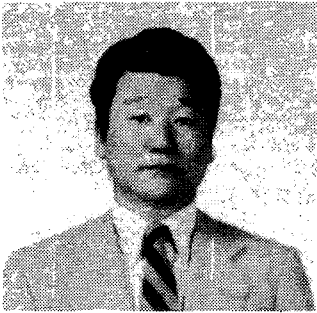


# 人口와 環境



李 時 伯

〈韓國人口保健研究院副院長〉

도대체 누가 자연을 병들게 하며 누가 자연을 배반하고 있는가? 물론이나 마나 犯人은 사람, 사람, 사람들이다.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병들어 가는데 어찌하여 경제발전만을 중시할 것인가? 우리 모두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발전하면서, 한편으로 자연을 보호해야 하겠다. -윗 사진은 本協會에서 벌이고 있는 環境保全캠페인-

## 1. 自然속에서의 人間活動

人間은 태어나면서 죽을때까지 두가지 活動을 한다. 하나는 生産活動이며 또 다른 한가지는 消費活動이다. 이 두가지 活動은 다같이 自然속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自然과 相互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自然과 人間活動이 서로 絶對로 征服하지도 않고 또 征服당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安定과 均衡속에 共存해야할 宿命적인 關係가 要求되기 때문이다. 즉 文明과 自然은 大自然의 순리에 어긋남이 없이 兩立할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自然은 기본적으로 땅과 물, 빛과 공기로 構成된 複合體로서 이들은 서로 調和를 이루고 그 調和속에서 生物體의 生活環境이 제공되는 것이

다. 그래서 그 속에서 動植物은 生存하며 繁殖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自然의 生活環境속에서 이루어나가는 人間의 生産과 消費活動은 점진적으로 文明社會를 이루고 그로부터 自然에 대한 人間의 無責任한 活動은 드디어 도전과 橫暴로 변하며 自然과 人間과의 正面 갈등문제를 생기게 했다. 나날이 增加하는 人口는 住居地의 확장을 要求하며 山林과 草地를 없애지게 하였고 또 時間이 경과되면서 수많은 人間集團으로 형성된 大都市가 여기저기에 탄생하면서 自然과의 충돌은 더욱 擴散되어 가기만 했다. 또 人間의 經濟的 活動 價値를 一方으로 追求한 各種 生産活動은 工業과 農業의 現代化를 促進시키면서 소위 開發에 의한 生態界의 變化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오랜 時間이 지나면서 점점 累積된 問題를 노골화 시켰으며 오늘날에는 드디어 공공연히 심각한 環境汚染問題를 들먹이게 하였으니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어느 個人이나 集團의 責任만이 아닌 우리는 하나의 自然속에서 다함께 산다는 이유로 凡世界的인 共同的 責任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人間의 經濟的 生活活動과 消費活動에 의한 副産物의 배출은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적으나 크나 自然保全의 目的으로 본다면 逆作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人間의 活動이 주는 自然의 破損을 最大限 막을 수 있으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人間의 生産活動을 높여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모두가 궁리해야할 最大의 과제이다. 한 個人에서 부터 集團에 이르기까지 自然에 주는 상처를 반드시 人口增加에 비례하여 증가할것 이라고만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自然保護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充分한 投資가 併行한다 할 지라도 人口增加에 의한 環境破損은 人口 1人當 消費量과 消費單位當 損傷과의 相乘作用으로 설명되는 것이 一般的인 상식이다.

그렇다면 自然속에서의 人口增加에 따른 人間活動은 확실히 再評價 받아야 하며 근본적으로 原因행위의 당사자인 人口의 量的 膨脹에 대해서

는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 2. 人間의 生産活動과 環境破損

오늘날 우리社會의 發展 目標은 高度의 産業化임은 말할것도 없다. 産業化는 단순한 機械利用에 의한 量的 生産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高度의 産業化는 필연적으로 各種 副産物을 남겨하며 이것은 生産과 관계없이 環境保全에 逆行하고 있는 것이 問題로 남는다.

人類文明發達을 통해 近代的인 産業社會의 出發은 역시 西歐(英國)에서 시작한 産業革命時代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의 環境破損問題도 사실상 그때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

「서기 2000년의 지구문제」라는 보고서는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의 생물종 약 50-100만종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사람이 사용하고 버린 廢棄物은 이제 버릴곳조차 없는 실정이다〉

다. 다시 말하여 自然과 함께 自然의 일원으로 살던 人間의 産業革命 이후 부터는 本格的인 生産과 消費에 喜喜樂樂하다 보니 무작정 自然에

도전하고 征服하려는 횡포가 심해지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다.

물론 위대한 人間の 頭腦는 自然 그대로의 自然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며 늘어나는 人口에 아랑곳없이 길어져가는 壽命에 개가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알게 모르게 人間能力 이상의 심각한 問題가 人口增加와 함께 人間の 生産活動은 自然을 무참히 破損하고 있으니 이는 곧 人間 스스로 죽음의 함정을 파고 있는 바와 다름이 없게 되어 있다. 自然의 問題는 곧 人間の 問題이기 때문이다.

「西紀 2000年의 地球問題」라는 한 報告書를 보면 그속에 무서운 사실을 記錄하고 있다. 즉 오늘날 增加하는 人口와 함께 高度産業化만 追求하고 自然保護의 義務를 이행하지 않을때는 西紀 2000年에 가서 地球上의 生物중 약 50만~100만종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말할것도 없이 高度의 産業社會와 人口增加에 의한 環境破損의 結果인 것이다. 「땅이 죽어간다. 河川과 바다가 죽어간다. 그리고 공기가 죽어간다」이 얼마나 어마 어마한 이야기인가? 땅과 물, 그리고 空氣가 죽어간다니 地球가 죽을 수 밖에 없고 그러니 아무리 知能이 높은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언정 그속에서 어찌 人間만이 버틸 수가 있겠는가?

세계보건기구의 報告書에 의하면 每 42秒마다 한사람 꼴로 사람이 農藥에 중독된다고 하며 그 때문에 1年에 13,000名이 죽는다고 한다. 1962年에 저 유명한 「말없는 봄(Silent Spring)」이란 冊을 써서 殺蟲劑가 環境을 파괴하고 있음을 고발한 美國의 「카슨」女史는 만물이 生氣를 찾을 봄에 디디티(DDT)의 오염때문에 自然은 죽음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조용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니 이것을 단순한 기우로만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도 各種 有機水銀劑 農藥을 과도하게 使用하고 있음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다.

1977年에 農土 1「헥트알」당 4.1 kg 정도로 사용했는데 1983年 현재는 무려 그 두배가 넘는 10 kg 을 쓴다고 하니 이는 國際許用限界線인

10.8 kg에 목이 찬 수준이다. 食糧增産만 알았지 이로 인한 環境破損은 어찌하란 말인가? 메뚜기가 없어지고 미꾸라지가 없어지고 또 논거미가 안보인다니 이것이 바로 農藥德分(?)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農藥때문에 논거미가 사라지고 그래서 벼멸구가 극성을 부리는 오늘날의 현상은 바로 環境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말이 아닌가? 그뿐이 아니다. 산업폐수나 잔류농약때문에 물고기가 몽땅 사라진 河川 그리고 조개나 海藻類가 한꺼번에 죽어간 해변을 우리 눈으로 直接보고 있으니 이는 하천과 바다가 함께 죽어가는 임종의 순간을 지켜 본다는 바와 다름이 없다. 空氣도 마찬가지로. 연탄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그리고 重化學 産業工場에서 마구 뿜어내는 有毒性가스는 드디어 남의 일과 같이 들던 酸性비를 지금 우리 머리위에서도 내리게 했다.

도대체 누가 自然을 病들게 하며 누가 自然을 배반하고 있는가? 물으나 나마 犯人은 사람, 사람, 사람들이다.

地球 땅의 人口가 많아지면서 또 經濟活動이 活潑해지고 産業社會가 이루어 지면서 環境破損의 度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으니 흔들리는 生態界앞에서 무어라 변명하라!

그러나 問題는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오늘의 環境汚染 問題가 産業社會 형성과 더불어 제기되고 이를 위한 治療 또한 産業保健, 環境工學, 産業工學 등 관련 학문속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힘써갈 것이나, 根本的인 行爲者는 사람일진데 많 아져가는 사람 수에 대한 예방조치 또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自然破損의 장본인인 人口의 增加를 最大限 抑制하여 環境을 원래의 自然 그대로 保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人口增加가 自然破損과 정비례적인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현실을 어느정도 인정한다면 環境保全의 目的에서도 人口는 반드시 適正水準에서 計劃되어야 한다.

### 3. 우리의 人口計劃과 環境保全의 責任

人口增加速度를 抑制하고 人口規模를 조정하고

저 하는 것은 經濟社會發展만을 目標한 것이 아니라 앞서 人間活動과 環境破損의 關係에서 이해한 바와 같이 環境保全의 의미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政府는 우리나라 人口의 成長 예측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되도록 可能限 모든 범위내에서 人口增加를 抑制하고자 하는 새로운 人口目標을 모색한바 있다. 즉 당초에 예상한 西紀 2,000年의 人口增加率 1「퍼센트」를 1995年 以前에 早期達成시킬 수 있도록 하며, 원래 가정한 2050년경에 가서야 人口增加가 停止될 수 있다는 예상을 西紀 2030年 이전에 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예상 人口規模를 당초보다 훨씬 줄여보자는 것이다.

이같은 人口增加率 1「퍼센트」 早期達成과 人口成長停止年度의 도달 예상 年度를 당초의 政府 가정과 비교해 보면 人口計劃面에서 대단히 意慾의임을 알 수 있다. 1「퍼센트」 早期 達成은 당초보다 約 5年정도 빨리 도달하는 셈이며 人口成長이 停止되는 年度 또한 당초 展望한 2050年보다 20年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서 人口規模面에서도 1「퍼센트」 早期達成에서는 約 200萬名 정도가 人口成長 停止年度의 早期達成에 있어서는 約 650萬의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各年度別 人口增加率과 人口規模의 結果가 당초보다 早期達成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人口問題나 自然破損問題가 해결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주어진 與件속에서 最大限 人口事業의 노력으로 다소간의 人口壓力과 人口增加에 의한 環境汚染을 조금이라도 예방해 보

고자 하는데 있다. 이미 현실적으로 관찰되는 바와 같이 人口成長速度가 빠른 나라일수록 人口規模가 크면서 經濟成長을 의욕적으로 追求하는 나라일수록 自然損傷問題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좁은 國土와 過密한 人口속에서 高度의 經濟成長을 追求하다 보니 필연코 環境問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高度 經濟成長을 追求하는 政策이 環境保全에 逆行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發展을 向한 産業化와 함께 環境保全을 위한 充分한 예방투자를 하지 않는 점에 잘못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덧붙여 人口增加와 함께 個人과 集團이 環境의 重要性을 깨닫고 各個人의 責任으로 自然을 사랑할 수 있도록 環境教育도 이제부터는 학교 정규교육속에 포함시켜야겠다. 環境破損은 一時的으로 短時間内に 생기지 않는 만큼 일단 環境問題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치유 또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汚染時間의 수십배가 더 要求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우리나라 人口는 어차피 2030年頃까지 成長할 것이며 經濟社會發展을 目標한 産業化 또는 지속적으로 推進될 것이나, 發展하고자 하는 意慾의 반만큼이라도 環境保全에 投資한다면 우리나라는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環境이 汚染되고 自然이 病들어 가는데 어찌하여 經濟發展만을 중시할 것인가? 우리 모두 쾌적한 環境속에서 健康하게 살기 위해서는 發展하면서 한편으로 自然을 保護해야겠다. \*

